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21. 01. 31. (나해) 제2253호

대구주보



군위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신명 18,15-20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1코린 7,32-3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21-2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카리타스 실천의 중심

일심재활원 원장 | 전상규 베르나르도 신부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 ”

—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중에서 —

우연히 접한 짧은 시는 ‘세상과 교회의 중심은 어디이며, 교회 사랑실천의 중심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해외 원조 주일을 정한 이유는 교회 안에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봉헌된 특별헌금도 한국 카리타스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교구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 중인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최근에 공동 미션을 만들었는데, 미션 문구는 ‘카리타스, 사람과 사랑이 함께합니다.’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실천은 카리타스라고 불리며, 카리타스는 사랑의 왕직을 수행한다는 뜻에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입니다. 또 단순히 사회복지실천으로 축소해서 이해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된 곳을 지향하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 교구,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사랑실천이 카리타스입니다. 이렇듯 해외 원조 주일은 가장 카리타스적인 의미를 담은 주님의 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나 대구대교구가 아니라, 더 가난한 나라와 더 가난한 교구를 우리 지향의 중심에 두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는 날, 사람과 하느님 사랑이 함께 만나는 날이 되길 희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궤도**

셋 (창세 4,25-26; 5,3-8)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아담의 대를 잇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담의 아들이라 하면 흔히들 카인과 아벨을 떠올리지만, 이들은 형제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구세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족보는 카인도 아벨도 아닌 셋을 “아담의 아들”로 기록합니다.(루카 3,38) 셋은 어떤 인물일까요?

셋은 ‘두다, 놓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카인과 아벨 대신 하느님께서 주신 자식’(창세 4,25)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창조주와 피조물, 남편과 아내 관계의 손상을 가져왔다면 이제 카인의 범죄는 동기간 관계까지도 훼손했고, 그렇게 창세기 저자는 한번 범하고 나면 점점 무너지고 계속 확산되어 가는 이 죄라는 인간의 고약한 본성을 고스란히 증언합니다. 원조의 교만과 불순종을 자비와 용서로 보듬어주셨던 하느님께 또다시 지독한 범죄로 응답한 인간에게 이제 더 무슨 구원과 희망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새로운 자손 셋의 탄생은 그 자체로 창조주 하느님의 축복과 섭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셋의 짧은 탄생 이야기에 ‘신중하게’ 삽입한 단어들을 통해, 독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우선, 아담이 “자기와 비슷하게(דְּמֻת) 제 모습으로(צִלָּם)”(5,3) 셋을 낳았다는 사실은, 태초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은총 지위가(“우리와 비슷하게[צִלָּם] 우리 모양으로[דְּמֻת] 사람을 만드자.”: 1,26) 원조와 카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셋을 낳고서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זָרַע) 하나를 나에게 세워 주셨구나(שֵׁית).”(4,25) 했던 환호성은 악에 대한 인간의 결정적 승리와 구세주를 약속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나는 … 네 후손[זָרַע]과 그 여자의 후손[זָרַע]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שֵׁית] …”: 3,15) 하느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드러내 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조상 셋의 탄생은 그 자체로, 인간의 죄를 넘어 구세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하느님의 충실과 자비를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조차 하느님의 용서와 은총은 이미 그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자책하며 제 스스로 만족할 만큼 깨끗해진 다음에야 하느님께 나아가겠다며 회개를 미룰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셋의 탄생은 인간의 죄가 결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고, 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찬미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입니다.(4,26) 에노스(히브리어 에노쉬 עֲנוֹשׁ)는 ‘사람’이란 뜻의 일반명사이기도 한데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사람이 드러야 할 첫 본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찬미를 드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바티칸 코로나19 백신 캠페인 개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도 접종

2021년 1월 14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호열 신부

바티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이 혈청 도착 후인 1월 13일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고령으로 우선 접종 대상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이미 백신을 접종했다.



교황청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바티칸 시국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이 제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방송사 ‘카날레5’의 뉴스 프로그램 ‘TG5’와 나눈 인터뷰에서 이번 주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개인 비서 게오르크 겐스바인(Georg Gaenswein) 대주교는 전임 교황도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TG5’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이 “윤리적 행동”이라며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누리듯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신성사성, 보건위생지침에 따른 재의 수요일 예식 특별 지침 공시

2021년 1월 12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상황은 여전히 주의를 요하며 이는 전례에도 마찬가지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올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2월 17일 재의 수요일을 앞두고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할 집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누리집에 공지했다.

경신성사성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사제는 재를 축복하고 성수를 뿌린 뒤, 전례에 참례한 전체 신자를 향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혹은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해 한 번만 말한다.” 경신성사성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제는 손을 소독하고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신 앞으로 나오는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는다. 만약 가능하다면 사제가 직접 참석자의 자리로 가서 재를 머리에 얹을 수 있다. 사제는 재를 집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는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강경복(姜景福) 수산나는 1762년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궁녀가 되었으며, 순교할 때까지 동정으로 생활하였다. 그녀가 살던 집은 ‘양제궁’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폐궁’(궁궐에서 쫓겨난 왕실의 친족이 거처하던 집이라는 뜻)이라고도 불렀다. 그 집의 주인은 송 마리아와 그녀의 며느리 신 마리아였다. 이들은 일찍부터 천주교에 입교하여 주문모 야고보 신부나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와 자주 왕래해 오고 있었다.

1798년 무렵 집주인 송 마리아는 강경복 수산나를 불러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면서 이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이때부터 수산나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교리를 배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주 신부로부터 영세를 하게 된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주문모 신부는 노비 남구월의 안내를 받아 양제궁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수산나는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갔다가 우연히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양제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 때문에 주 신부는 다행히 그곳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수산나도 양제궁을 몰래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뒤따라 온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수산나는 즉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미 천주교에 깊이 빠져 있으므로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포도청에서는 그녀를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이송하였으며, 그녀는 이곳에서 더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진 탓에 잠시 마음이 약해져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의금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듣자 수산나를 형조로 내려보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던 것을 크게 뉘우치면서 다시 신앙을 굳게 증거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저는 천주교에 깊이 빠져서 이를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였으며, 양제궁에 거처하면서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이 갈수록 굳어져 왔으니, 형벌을 당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수산나는 마침내 강완숙 등 동료 8명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에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39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강경복 수산나
(1762 ~ 18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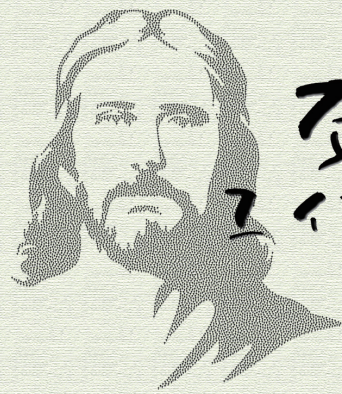
인류는 한 가족, 우리 공동의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은 '사랑'입니다



2021년 해외 원조 주일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정신철 주교님의 해외 원조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이라 그 사랑에게서 나기라

바르나사 작곡



캘리그래피
장성영 안드레아



가톨릭평화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신.신.우.신!
신신우신 2부는 이제 요일별로
각 지역 신부님들이 진행합니다.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2부, 대구아이가~!

방송시간: 매주 금, 오후 1시 ~ 2시
진행: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
(교구 청년청소년국 차장)
※ 라디오FM 93.1Mhz, cpbc뽕(앱),
YouTube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 함께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닌

박성규 엘리지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도 많은 관심을..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2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성소자 초대

일시: 개인 상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성소담당,
(010)4142-8184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2.7(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교육 | 모집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기초수급자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취득 모집

일시: 3.5(금)~6.6(일)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대구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3.2 매주 화_모세오경

심화과정: 3.8 매주 월_지혜란?
수업: 10:00, 19:30(비대면 수강가능)
장소: 베네딕도교육관(내곡로 123)
문의: (010)7185-3431 / (010)2969-4050

예수회 송봉모 신부 성경대학 동영상 강의
한 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
(3월 개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강좌오픈: 2.15(월)
엘리버드 할인혜택: 1.15(금)~2.14(일)
국내최고 저자 강의
문의: (02)945-3300 / (010)3092-1108
<http://www.catholicon.co.kr>



교황회칙 '천미받으소서'로 살기

신청: 1.24(주일) ~ 31(주일) / 대상: 신자 누구나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천미받으소서』로 살기

- 생태적 삶과 함께하는 사순절

가격: 1,500원 / 방법: 각 본당 별 신청(본당 사무실 문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오늘이 마감일이므로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신자들이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 2월 17일 재의 수요일부터 성주간 수요일까지 (2월 17일~3월 31일, 37일간) 생태적 삶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영환(베네딕도) 몬시뇰
2014년 2월 1일

교육 | 모집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재능 기부
전문상담사 모집**

자격: 관련학과 석사 및 2급 자격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마감: 2.5(금) / 문의: 250-3100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 모집

일시: 4.4(일)~2022.2.5(토)
신청: 1.22(금)~3.14(일) / 4만원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http://bible40weeks.org>

2021 전기3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25(월)~2.1(월)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2021년도 1학기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성경과 가톨릭 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합니다.

개강: 3.1(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4차: 3.12(금)~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2월 중순~5월 말 10:00~17:30
매주 화,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신구약의 계약에서 하느님의 구원 체험

접수: 1.31(일)부터
대상: 신자, 말씀의해 안내자
구약: 창세기부터(오전 목, 저녁 화)
신약: 마르코 복음부터(오전 수)
장소: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거룩한
독서반) / 문의: (010)2512-4627

2021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화)

구약반: (금) 10:00, (화) 20:00

신약반: (월) 10:00, (목) 20:00

심화반: (금)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채용 | 안내

2대리구청 사무직원 채용(대체인력)

계약: 1년 6개월(3월 중 계약)
마감: 2.23(화) 17:00(사무실 현장접수)
면접: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졸업증
명서,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 743-7010

바오로딸 서원 개원인사

일시: 1.31(일) 범어 서원 폐원
3.2(화) 동성로 서원 개원
후원해 주신 모든 은인·협력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 425-5185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가톨릭피부과** 의원
CATHOLIC SKIN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곽재혁신경과**
BYEOKWAE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前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막병원 4층
053-255-2211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 구 정 신 병 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